

짧지만 강직한 삶 살았던 한 시인의 문학과 생애

최하림 엮음 「현대시인연구⑨-김수영」

‘4·19’라는 격변하는 역사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무사안일과 수수방관의 자세가 팽배했던 한국문단에 침묵하지 않는 양심이자 고독한 모더니스트였던 故김수영 시인은 오늘의 정체된 현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자기만 죽을 모르는 시인이었다.

‘참여파’와 ‘순수파’로 갈라진 60년대 우리 문단의 현실에서 양편 모두가 갖고 있는 편식을 배격하고 한국시의 정신과 육체의 고른 발육과 형식과 내용의 통일을 추구, 구체적 작품으로써 강조하는 사려깊음까지 보여주었던 그는 1968년 6월16일, 48세를 마지막으로 험겨웠던 세상과의 싸움을 끝내고 풀처럼 흙과 함께 누웠다. 그러나 25년 전 이맘때 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문단에 남기고 간 것은 짧지만 깊이 있었던 그의 생애만큼 우리 곁에 오래도록 남아 그의 유고시 ‘풀’처럼 그 누구보다도 더 먼저 울고 일어서서 아침햇살에 숨어서 반짝이는 풀빛처럼 맑고 고운, 그리고 질기디 질긴 생명력을 지닌 채 저항의 역사, 그 거친 맥박 속에 영원히 살아숨쉬고 있다.

김수영 시인은 1968년 「창작과 비평」(가을호)의 ‘고김수영 특집’ 이후 적지않은 논문과 평론을 통해 ‘신동엽’과 더불어 60년대를 가장 치열하게 살다간 실천하는 시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유고작품이나 그에 대한 평론들로서 역사 속의 인물로서 시인 김수영은 널리 평가되고 있지만, 시인이기에 앞서 파란만장했던 5, 60년대, 수난의 역사를 살다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김수영에 대한 자료나 기록들은 좀처럼 접할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불행 중 다행으로 근간에 문학세계사에서 ‘한국현대시인연구’ 시리즈의 아홉번째로 김수영 시인의 생애와 작품을 분석, 비평한 평론과 시, 산문, 그리고 작품연보 및 연구자료목록 등을 모두 망라한 「한국현대시인연구⑨-김수영」을 내놓았다.

이 책의 편저자 최하림은 작고한 김수영 시인과 동시대를 살았던 문인으로 김수영 시인 연구에서 가장 결핍된 시인 개인의 생애와 수난사를 시인의 노모와 미망인, 그리고 험난시대를 함께 고쳐왔던 문단의 친구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가장 치열했으며 짧고 강직한 생애를 살다간 모더니스트 저항시인의 모습 뒤에 감춰진 ‘한 완전주의자 김수영’의 개인적 고뇌와 자신에 대한 끝없는 자학과 분노, 그리고 그 뒤를 늘 따라다녔던 쓸쓸한 고독의 그림자 등 ‘시인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김수영’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보여준다.

영’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현대시인연구⑨-김수영」을 통해서 그동안 ‘김수영 연구’에서 미흡했던 인간 김수영을 알고 시인의 시와 산문에 대한 좀더 깊이있는 이해를 함으로써 한국문학사에서 김수영 시인이 가져다준 의미와 문학적 가치에 대한 다소 균형잡힌 시각의 평가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순옥

전남 여수시 국동 구봉APT 104동 408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문예마당)는 중산층 여성의 문제를 다룬 여성주의(페미니즘) 소설이다.

이 소설은 혜완, 영선, 경혜라는 30대의 세대학동창들이 여성으로서 현실과 치열하게 대결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세 여성이 대학시절 꿈꾸던 아름다운 미래—좋은 남편을 만나 애를 낳고 오손도손 살아가는—는 그들이 사회에 내던져질 때부터 벽에 부딪치고 만다. 즉 세 여성이 모두 한 남자선배를 좋아하다. 결국은 그 선배가 셋 모르게 모두를 개인적으로 사귀어왔다는, 대학시절에 이미 시작된 현실의 높은 벽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혜완은 자기일을 가지려다 아이를 죽인 책임을 모두 지고 남편과 이혼하게 되며, 이 혼녀로서 사회의 편견에 부딪힌다.

또한 영선은 순종하는 전형적 한국여인처럼 남편과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나 결국 죽게 되는 것은 모두 남자, 가정, 사회가 여성들을 대하는 편견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러한 점들이 마치 3류 통속연애소설 같은 이야기 전개를 담고 있는 이 소설을 그것과 다른 여성주의 문학으로서 위치하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 소설의 미덕은 그러한 여성이 겪는 사회적 편견을 드러냄에 있지 않다. ‘여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반감과 여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거의 본능에 가까운 갈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혜완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회가 가진 뿌리깊은 편견은 여성들 또한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이 소설이 가진 큰 미덕이다.

결국 작가는 ‘혼자서 가라’라는 제목에서

보여지듯 여성들 스스로부터 그런 편견을 깨뜨림으로써만이 여성들이 주부로서 어머니로서가 아닌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이러한 날카로운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적하고 싶은 점은 양상한 등장인물들의 형상화에 있다.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살아숨쉬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말과 생각만을 가진 인형같이 느껴진다. 그것은 작가가 하고픈 말을 세 여성을 통해 보여준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데 큰 결함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문학과 과학이 다른 점은 과학이 개념적인 데 반해 문학은 형상화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최영임

서울 노원구 하계동 청구APT 7-1206호

「중국을 움직인 30권의 책」

고전은 내게 있어 언제나 박물관 진열장 속에 든 보물 같은 것이었다. 밖에서 쳐다볼 뿐 직접 만지거나 느낄 수 없는 것. 어쩌다 용기를 내어 시도를 해보지만, 어려운 한문들과 딱딱한 문체, 모호한 문장들은 나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었다.

「중국을 움직인 30권의 책」은 이같은 고전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나를 해방시켜준 책이다. 중국 武漢大學의 교수들이 공동집필하여 펴낸 것을 한인회, 이동철씨가 공동번역하여 도서출판 지영사에서 출판한 이 책은 중국 역사에 영향을 미친 30권의 고전 명저를 역사발전 단계상 세 단계로 나누어 선별하고 소개하였는데, 동양사상의 근원지임을 말해 주기도 하는듯, 그 30권(부록 3권)의 제목들이 너무나 귀에 익은 것들이다.

「상서」에서부터 사서삼경을 거쳐 「홍루몽」과 「아큐정전」과 토목동의 「신민주주의론」에 이르는 이 고전 명저의 역사적 대장정은 중국 사상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각각의 책의 내용이 알기쉽게 설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과 논쟁과정과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 마치 고전을 낱알이 해부하여 그 실체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특히 유교의 경전으로 신성시되었던 고전에 과감히 대항한 황종의 「논형」과 불교 교리에 새로운 장을 연 「단경」, 인체를 동양 특유의 철학으로 풀어

병을 고치는 동방의학의 비전 「황제내경」 등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성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듯 각 장마다 소개되는 인용구들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논어」와 「주역」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공자와 주희를 비판할 수 있고, 손중산과 토목동이 설계한 새로운 중국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읽고 얻은 것들임을 생각할 때, 「중국을 움직인 30권의 책」은 중국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내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임에 분명하다.

여운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관악APT 12-408호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소설 「하얀전쟁」으로 이미 인간 내면세계를 묘사하는 데에 탁월한 작가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안정효의 근작소설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는 6·25때 유년시절을 보낸 세대의 영화에 대한 재미있고도 슬픈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품 곳곳에 나타나 있는 영화와 관계된 방대한 분량의 문화사적인 지식과, 만연체로 표현된 길고 긴 문장들은 읽는 사람을 더욱 재미나게 해준다. 이 소설은 영화감독을 하고 있는 ‘나명길’의 시선을 통해 학창시절 영화에 푹 빠져 지내던 할리우드 키드라는 별명이 붙은 임병석이라는 한 친구의 생애를 이야기해 나가고 있다.

별명에 걸맞게 유별나게 영화를 많이 보았던 할리우드 키드는 적어도 영화에 관해서라면 사뭇팔달 모르는 게 없었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라면 수업 빼먹기, 담뱃머 들어가기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영화에만 몰두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현실과 환상의 혼돈 속에서 애매하게 삶을 이어가던 그에게 전환이 다가온 것은 병역 문제였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현실의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만의 비현실조차 정립하지 못한” 정신의 소유자였던 그는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지도 해결하지도 못한 채 도피해 버리고 만 것이다.

오랜 떠돌이생활 끝에 임병석이 행려병자와 같은 몰골로 영화감독을 하고 있는 ‘나’를 마지막으로 찾아온 건 어느 초겨울날이었다.

알립니다 !!

“초체하고 병색이 완연한” 모습의 그가 억지로 떠맡기듯 ‘나’에게 넘긴 보따리는 뜻밖에도 20년이 넘게 써왔다는 자작 시나리오였다. 생각 끝에 할리우드 키드의 시나리오 「무책임한 두주일」을 영화화하기로 결심한 나는 끝내 촬영 도중 뭔가 석연치 않은 장면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은 제각각 수없이 많은 다른 영화의 장면들을 모아 구성한 짜집기 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촬영을 계속하지도 중지하지도 못한 채 고민에 빠진 ‘나’는 모작과 창작의 진정한 의미, 영감이라는 것의 의미 등에 골몰하게 되고 결국 “인류문화는 서로 빌려다 쓰고 훔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발전되어 간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몰래몰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썼을 이 “낭만적인 거렁뱅이”에게 적어도 ‘나’만큼은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 아무도 “병색이 의 암호”를 풀지 못한 채 영화는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 후 ‘나’는 임병석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다. 그가 “미운오리새끼였는지 백조였는지 여전히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임병석은 ‘나’의 주변을 사는 한 친구로 계속해서 남는다.

4·19세대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던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영화가 임병석이라는 한 인간의 삶에 끼쳤던 엄청난 마력은 참으로 놀랄 만하다. 그 시대에 영화가 가졌던 영향력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며 어쩔수없이 1990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문화매체로서 영화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져본다.

김은미

서울 도봉구 방학3동 삼익세라믹APT 101동 806호

유주현 장편소설 「破天舞」

역사가 어차피 ‘해석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작되는 것’이라면 주사위를 굴리듯이 역사를 아니 ‘역사해석’을 이리저리 굴려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굴러보기’에서 역사소설은 상당한 가치를 확보한다.

유주현의 「破天舞」는 교과서적 평가가 내게 심어준 수양대군의 이미지를 얼마만큼 회의적인 시선으로 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생육신 그리고 사육신에 대한 맹목적인 숭앙을 되새겨보게 하였다.

그들의 파격적인 논리—왕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므로 무능한 왕은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식—은 그 당시에는 일면 케번처럼 들렸음에도 생육신 중의 한 명인 김시습이 결국 이러한 논리를 인정하고 마는 것이 새롭다. 어쩌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의 자아방치였을지도 모르지만,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왕어 누구든—선왕의 아들이든, 조카든, 삼촌이든, 외척이든—‘살이’를 살이답게 해주는 왕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내린다는 것을 그는 오랜 유랑생활을 통해서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결국 그는 수양일파의 배신을 증오해서가 아니라, 근본적 가치의 다면성에 회의를 느껴 거칠고 난잡한 미치광이 행세를 그만둘 수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들이 많은게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하다.

한편 수양대군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는 알려진 것처럼 ‘냉혈’의 화신이 결코 아니었다. 모든 살육의 책임을 온전히 그에게만 덮어씌우기보다는 간신배(그들은 스스로를 역적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추호도 없었다)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보다 많은 책임을 지었다. 왕위 찬탈 초기에는 수양의 의지가 보다 강하게 작용했고 그 후의 살육은 거의 신하들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값을 위해 부처를 찾기도 하고, 단 한번 본 적이 있을 뿐인 여인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줄도 아는 그야말로 ‘인간 수양’이었다고 이 책은 말해준다.

여주인공격으로 김종서의 여진족 출신 애첩 雪里가 등장해서 역사가 한 여성에게 내린 가혹한 매질을 때로는 종교의 힘에 기대어 때로는 의리의 힘을 빌어 때로는 사랑의 힘에 밀려 힘겹게 견뎌내는 처절하고도 단아한 그리고 너무나도 영롱한 영혼을 지닌 여인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이 책의 등장인물들 중의 누구였을까. 그들이 오늘 다시 살아나 내 주위를 겹겹이 에워싼다면 나는 누구의 탈을 뒤집어쓸 것인가. 모든 인간상을 되짚어보아도 대답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주지 않는다. 흔히들 말하듯이 독자에게 끝내 어떤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이 소설의 한계인가 보다. 그러나 그게 어찌 소설의 한계일까 싶다. 이 책은 ‘진리의 한계’를 냉정하게 말해준다.

박문형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10

○ 데이트하던날



○ Date

- ① I'm going out for a date. Do I look nice?
Oh!
- ② You look gorgeous and terrific!
- ③ Will you have a meal with me in the room?
What? In the room?
- ④ What's wrong with you?

○ 데이트하다

- ① 데이트 이くんですけれど、とうや!
- ② すてき、すてき、びか びか ひかっているね
- ③ へやに はいって しょくじを……
ええ? へやに?
- ④ なんで とこか いたいのですか?

일간스포츠에 연재중인 생활만화 “투가리”를 단행본으로 출간하고자 합니다.

분량 : 200페이지 3권 정도

내용 : 만화 + 생활회화 (영문, 일문)

뜻있는 출판사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투가리 이해광

(문의전화 : (02) 725-0063)

※문하생 모집 (자격 : 명랑만화지망생 남자)